

성경봅니다. 먼저 잠언 22장 ~ 6절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아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

마땅히 행할길을 가르치는건 참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르쳐야 될길이 있을거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또 얼마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 늙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단추까지 바르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첫단추를 잘 못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어색해 보이는거예요

어린시절에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다고 하는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겁니다. 하나님이 특별이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또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겠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낫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계속 학생들이 나아온다라고 하는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는겁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일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계속 아이들이 나아온다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큰 복이예요. 오늘 참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졸업자들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니까요 학생들의 졸업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초등학생은 많아졌어요.

또 내년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전도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고 들어와서 졸업하는 퍼센트가 더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즉 부모들에 이어서 부모들이 전도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거외에 우리가 따로 준비한 집회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다른학생들을 전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보는게 우리의 작은소망이잖아요. 어찌보면 가장 큰 소망일수 있습니다. 자연증가 뿐만 아니라 애 낳아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서 증가하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증가하는 3.4학년은 그런것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들수록 구원 받기 참 힘듭니다. 어

릴때는 그래도 쉬워요. 어렸을때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디모데가 어린나이에도 하나님의 충성스런 일꾼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성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땅히 행할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령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꼭 어떤성경의 세부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것이기 때문에 모든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조심해야 될 것 삼가할것들을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으로 지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될겁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의 입장이라면 애들이 이따만한 책을 언제 보겠어요. 그죠 학교 도서관에도 이런책은 없을거예요. 상당히 부담되죠. 그죠 이런 부담되는 책을 걷보기에도 부담되는 이책을 아이들이 읽기 위해서 달려들고 또 들고 다닙니다. 그거 자체가 대견하다 생각돼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한두구절이라도 읽어보려고 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참 그 고사리 손에 들려든 성경책이 그렇게 귀하고 이뻐보일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소화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유임율 보시면 새로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한해는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우리의 각오는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아픈일도 있었을것이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겁니다. 아픈일은 속상한일 같은거 있잖아요.

빨리 잊고 교훈을 삼고 보람된 일은 새로운일에 대한 도전의 동기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나쁜일만 있었던건 아니죠? 그죠 좋은 일도 있었죠? 좋은일 늘 나쁜것만 하나님이주시지는 않습니다.

좋은걸 기억해보고 그걸 또 하나씩 하나씩 남겨두면서 추억으로 남겨두고 교사를 새로운마음으로 할려고 하는 다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안좋은 것도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졌을때도 있었고 학생이 속상하게 했을때도 있고 그런일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13~14절에서 두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좋아가노라”

첫째 뒤에 있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잘했건 못했건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 때늦은 후회를 계속한다고 하면 내삶은 무가치 할거예요. 회상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잊을건 잊자 어떻게 달려 왔던지 일단 잊을건 잊자 그리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좋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모습은 달라 집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 할거냐 앞에 있는 어떤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수입을 좀더 늘려야겠다 그러면 밤낮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좀더 열심히해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장학금이 최고 목표가 되겠죠 직장에서 승진이다 그러면 그것이 될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위해 내가 목표를 세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주신 보여주신 풋대가 무엇이냐 그런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드니 마시든지 하는 것은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 구석구석 새밀한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게 생각할실까를 고민해보는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 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그랬는데 달려가는 방향이 중요하죠 간혹 잘못 달리면 실격이예요. 올림픽에서 땅 쌌는데 표적이 안맞고 남의거 맞혀서 메달 못 딴사람도 있잖아요 육상하는 선수는 자기트랙을 달려야해요 달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쓰러뜨렸을때 물멘돌을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다윗이 아무생각없이 돌렸을까요 아무되나 돌리다가 땅놔버리면 아무대나 가겠지 열추적 미사일 그런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던졌던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방향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엇저는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있는 풋대가 분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는 힘있는 추진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산소망은 현재 고난의삶을 위로게 되며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교훈을 늘 생각하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2006년학년도가 다음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떤아이들이 올까? 어떤분은 속으로 굉장히좋아하는분도 있고 어떤분은 비명을 지르는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4학년을 맡았는데 3학년때 제는 영 아니었는데 곤교롭게도 그아이가 내반에 와있어 아! 일년 꼬였다 그럴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이가 탄식을 할수도 있겠죠 저선생님은 안맞났으면 좋겠는데

딱보니 그선생님 이름이 떡하니 있어요 하아! 괴롭겠죠 좋은 기대감을 가져보십시오 일년을 하나님께서 내일년을 꼬이도록 하기위해서 일이 안풀도록 하기 위해서 악질적인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시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불디치는하더라도 조금 뭔가 빼그덕 빼그덕 거리더라도 내게 일년동안 내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몇 명되든지요 그멤버는 한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이들 이예요. 그런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생각 없으면은 일단 부딪치고보자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쵸 근데 좋은 시각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빼 보일거예요. 교회학교라는 곳도 힘들지만 보람있겠지 하고 오신분은 힘들다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올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다음은 뭔가 보람있겠지 생각하는거예요 마치 터널 통과할 때 기차 타고 터널통과할 때 버스타고 통과할 때 들어가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생각하잖아요 나오겠지.. 터널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차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운전하시는분은 알겁니다 저도 좀 아 위험하구나라는걸 알게되서 터널들어갈때는 조금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왜그러죠 왜요 자매들은 잘 모르시나요. 운전안하면 잘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터널안에는 어두운터널안에는 가끔가다가 불도 겨지않고 느린느린 가는 대형차들이 슬슬 가고 있어요. 과속으로 짹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앞에 큰차가 있고 충돌하는일이 벼려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때는 들어가긴들어가되 조심해서 살펴보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끝이 있다는 것은 알게되요 터널 어린아이들은 터널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애보니까요 터널을 참 좋아해요 구멍만 보면 다터널이야 구멍만보면 터널이다 그리고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어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얻을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고생 ..

2

고진감래라고 고생 뒤에 복이온다고 좋은 것이 온다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영광을 하찬게 주진는 않더라고요 하찮은 수고에 좋은 영광을 막 주지 않아요.

내가 그만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 했었을때에 주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그것에 따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교사 일은 조금 다른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는내가수준

보다 생각하기에 조금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드려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되면 기쁨으로 맞이 할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내년이 막 기대가 됩니다 2016학년도가 기대가 되요. 나름대로 이제 3월달이 되면 제가 안산에 온지 3년이 됩니다 발령은 4월에 났고 오기는 3월부터 왔기 때문에 3월이 되면 만2년이 되고 서당개3년이 제가 서당개는 아니지만 어째든 3년이 채워져가는 한해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추진도하고 교제도 해보려해요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원가 할려고하는 의지가 막 생깁니다. 어젓게 임원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수련회를 좀 멀리가서 임원수련회를 했어요 교제를여 아주 늦게까지 했어요 거의뭐 새벽 다섯시까진가 그렇게했던거 같은데 정말 젊은분들은 일찍 떨어지고 고령의 두집사님은 정말 즐기더만요. 그래서 늦게까지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무선생님들도 거의 늦은세시 세시 넘을때까지 교제한거 같아요. 한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걸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미리 뭘 챙겨야 되는지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할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기존 교사들도요 정말 좋아해요 아까 졸업식장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꽉 모여있는데 아 정말 7살에 유치부들어가면 어른같거든요 아 근데 초등부와 같이있으니까 완전 애기데 6학년이요 정말 어른같드라니까요 그 유치부애들이랑 같이있으니까 근데 그 6학년 아이들이 여기 중1로 딱 오면 어떨겠어요 지금 중2가 지금보면 굉장히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보다 더 얘기 같을거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겁니다 중학생이라 아무래도 각 오도 새롭고 그렇잖아요 졸업반의 시점에서 그런 아이들 원가 잘 해 볼려고 하는 아이들가지고 우리가 한해를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입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은 실망하겠지 하는 생각보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일년을 좀 힘들더라도 기분 좋게 한번 보내보자 유익하게 한번 보내보자 이런 각오를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사전 파악 입니다

이 목표는 교사 자신의 것과 학생들의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표라는거죠 학생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미리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였다면, 작년에 담임교사와 혹은 학부모와 교제를 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였다면 이미 우리는 담임 교사와 혹은 학부모와 교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중1에 올라가는 교사들은 지금6학년 학생들을 계속 한달 정도를 계속 참관 수업을 하고 쟁겨습니다 계속 봤어요 수업에 참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반 그것이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 전체 배치가 거기 써 붙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5학년이네 아이고 4학년 3학년 이것만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누구냐 아이들이 도대체 누가 왔느냐

그이름 다 적으셨어요 이름적고 그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면 전화 한통이라도 이번주간에 해야 하겠죠

제가 누구입니다

뒤에 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교제를 하지 못했다면 3월 한달 기간 내에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이전 교사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사전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혹은 이아이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거다 이아이는 이런 부분 좋아한다 왜 싫어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지 말로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통통 합니다

애은 통통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 근데 선생님은 애를 귀여우니까 통통한 것이 좋으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으~시 그럴거 아니에요

그아이가 선생님 나는 그말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그말하면 선생님 안볼거예요 이런말들을해요 그냥 속으로 속상한거야

말 안하면 선생님은 또 뭐하겠어요 이쪽 잡았으니 또 이쪽도 한번 해야지 아이고 귀여워 통통한 것이 좋으네 그러면 열받지 일년동안 교제를 하면서 지내 왔다면 이 아이가 싫어하는거 그런것들이 원지는 알면 좋겠다 그거는 교제하면 되요 혹은 부모님께 전화해 보시면 알수있어요 어 이전의 교사 일년동안 비록 많은 시간을 아이하고 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아이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그러면 신입 교사들은 참 답답하죠 그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애 선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작년에 인제 제가 신입교사 3학년 맡았는데 3학년 1반 맡았는데 애가 2학년에서 올라 왔을거 아니에요 2학년때 몇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은 맡았던 분이 어떻게 해야

되요 가서 말을 해줘야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아이를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요 딸을 시집 보네니까 신랑이 알아서 해라고 손 놓음니까 잘 가도록 배려하기 위해 원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깐 내 아이를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옮겨보낸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면 내 아이가 몇 반에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강혹 내아이가 빠진경우도 있어요 빠진경우도 내아이가 누락된 경우도 있을수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물어 봅니다 자기반 아이들이 어디로 배치 되었는지 다 확인 하셨어요 확인했어요 예 다 확인했군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생님께 간지도 알죠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해요 3월은요 정보 교환으로 바쁜달이될거에요 주주에 전화해서 애 어땠냐 어땠냐 혹시 메모라도 해 놓은 거 있으면 달라고 사전 교제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되면 아이들하고 좋은 교제를 가질수있어요 필요하겠죠 어때요 사전에 한번 학부모님들이나 그전에 교사랑 교제하신분 계셔요 어떠세요 아니면 아이들을 일단 맞이하고 인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파악 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수가 좀 뒤지잖아요 미리파악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졸업을 미리하니까 이제 이미 한달 전부터 졸업생들을 명단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분반 배치를 다해서 이애들을 특성대로 파악하고 그랬어요 그런 작업이 필요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 7명이 배치가 되는데 8명이 배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잘 나오는 학생이고3명은잘 안나오는 학생이다 그러면 뭐나올때까지 기다릴 거에요 그러면 그아이 선생님이 알거 아니에요 이전 선생님이 이야기는 분기마다 한번 나옵니다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거의 못나오고 전화 교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미리 파악을 해야죠 미리 출석률도 한번 쭉 파악을 해보고 그런 것이 사전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개인목표 설정 이라고 되어있죠

개인 목표는 후에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런 목표도 갖지않고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흥적인 교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개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학생의 1년후의 모습을 그려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확실한 윤곽이 그려지는 것은 아이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는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틀렸습니다 이 목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학생들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하면서 고쳐질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팍악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수정해보십시오 일단은 그려 보세요 사전 교제가 되면 아이들을 모습을 일단은 그려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딱 만났는데 영연아 어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놀랄거 아니예

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교제 하면서 뭐 사이가 어땠으면서 오늘 이런일이 있었다고 이런얘기 하면 아이를 얼마나 놀라겠에요 헛 선지자로이소이다 어허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아이들이요 상당히 놀랄거에요 그런 놀라움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뜻하지 않은정보를 통해서 아이를 깜짝 놀라게 해볼만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교사 자신의 발전을 위한것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일년간 공부할 내용 이라든가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 꾸준한 독서는 필수입니다 개인 독서 목표도 세워 보시고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자 아이들에 대한것도

그 다음에 운영계획도 있는데요

1년의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교사들은 일년의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연간계획은 나왔는데 일년운영계획이 없다면 분기마다의 계획은 있는가 머릿돌은 분기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교재를 살펴보고 분기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또한 월간 계획도 미리 세워보세요. 학생들과 충분한 래포가 형성될 필요가 어떤 친밀함 같은 것이 있다면 3월 한달은 정말 중요한 때일 것입니다.

54과부터 이게 이제 공 일과가 아니라 53과에요 54과인가 53과로 되있죠 머릿돌에 보면 54과부터 분열 왕국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2년에 한번 배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이 하반기를 배우는 건데 분열 왕국을 그 이후에 분여왕국을 다루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혹시 사전에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복습도 필요할거라 생각도 됩니다

단, 분반의 운영이 학년의 운영과 초등부의 운영과 충돌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전체 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수업을 계획해 보십시오.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큰 여유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보습의 계획도 몇가지 세워서 지난번에 작년에 배웠던거 잠깐 점검 해주고 또 이어서 가고 내가 머릿돌을 쭉한달치 보거나 분기별로보면 머릿돌을 얼마나 배우는지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미리 재미있게 할려면은 뭐 달른것도 준비 할수 있겠죠

심방 계획도 필요합니다. 심방은 큰 유익을 줍니다.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임원들과 같이 심방을 가도 좋습니다. 우리 2006학년도 전국교사수련회 책자에 심방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어요.

내용중에 보시면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자세하게 써어 놨더라고요. 가시면..

3. 학생들과의 교제 준비

첫 수업은 중요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면, 설문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교제라든지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담아서 그것을 작성하도록 하는거죠 그 설문의 내용들은 서로 교제하여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중에서 자기만 할려고 하는분이 있다면 공유하고 같이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할수있도록하고 신입교사들은 당황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없이 딱 왔는데 옆에 경험있는 교사는 예쁜 종이에 궁금한거 물어보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막 애들한데 뭔가 하면는요 신입교사 주눅 들겠어요 안들겠어요지만 다하고 그러면 굉장히설렁해 지는거에요 초반부터 애들이그럴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는 뭐 안주나 막이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 하는게 필요해요 공유하는 것이 그런거는 교무 선생님들이 쟁기셔야 합니다 학년 주임이있으면 학년 주임이 쟁기고 교무가 있으면 교무가 쟁기고 그래서 첫주 수업하기전에 목요일날 모이면 어떤 수업을 할 예정이냐 쭉 물어보는거에요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뭐 할것이 있나 그걸 또같이 공유 하는 거에요 그래서 평균되게 해야죠 첫판부터 옆에서 게임도 하고 별것을 다하는데 자 성경 봄 머릿돌 보자 하며 체크하고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처음부터 푹죽어서 시작 하면은요 어려워져요 교무선생님들이 쟁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 생활 기록부있죠

초기에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성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생활기록부 작성하시고

또 머릿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과의 약속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초기에는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아이들이 보입니다. 혹은 조금 튀어 보이기 위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빼딱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인상을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므로 분반에서의 개인의 다짐이라든지, 약속들을 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미리 반에서 정할 수 있는 약속들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투른 학생들의 발표력과 표현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왜 애들은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몇가지 예시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근감을 주는 게임도 몇 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신입교사들은 첫 수업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사를 하시던 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분반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상황들을 경험이 많은 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도 주일날 처음모임하고 어떻게 수업했는지 계속점검을 해야해요 그리고부족한 부분들이 뭐였는지 뭐가 어색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뭐 첫수업 망쳤다고 올해 일년 꼬였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 할수도 있으니까 생각은 미리 좀 많이 하고 가고 내가 맡게되는 아이들이 누군지는 좀생각을 하고 가시는게요 정말수업에 좋아요 거기 같더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학부모 얼굴 아는 것은 학부모 교제때 3월 말이나 돼서 알고 그러지 말고 미리 미리 좀 챙기시고 확인 하시면 좋겠어요

5

이 아이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구역 아이에요 그럼 황당하잖아요 내가 구역모임 안 나갔기 때문에 구역의 아이인지도 몰랐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과 교제 첫 수업 혹은 3월 한달 그건 정말 중요해요 첫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정도면은 거의 결판 난다고 그러는데 그 수업이 중요한 것 만큼 교사들이 서로 지혜를 모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1학년 7세에서 1학년 올라온 애들은 뭐 거창하게 계획을 못 세울 거예요 애들 체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성경책 들고 오는 훈련부터 시켜야 되요 그죠 그래요 안그래요 성경책 대부분은 없을 테니까 있는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없으니까 이걸 가져오는 훈련부터 시켜야 되요 체력훈련 기합 주지 마시고 그리고 뭐 해야되요 뭐해야되요 찾는거 1학년때 성경만 잘 찾아도 되요 일년동안 성경 찾기만 할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 3개월은 성경 찾기해 볼까 뭐 주사위 해가지고 66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고 벌칙도 좀 주어보고 하는거죠 원가 아이들이 처음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친근감 있게 대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요 그렇다고 꿀 사다가 꿀 바르겠어요 먹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7세에서 처음 오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성경을 찾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도 하는것도 어설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하는것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은 정말 잘 들어요 애비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씀은 너무 잘

들어 참 희안하게 그래서 차근 차근 애들 생활지도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십시오 1학년 애들한테

아 게임 이것 저것 하고그러면 애들이 이해가 안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이냐 그건 그 맡았던 선생님께 물어 봐야지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당황합니다 학부모도 만나보고 이전 교사는 틀림없이 전 교사 꼭 만나서 교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쪼록 첫 수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머릿돌은 몇가지 하는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작성 하셔서 좋고 머릿돌을 충분히 읽어 보십시오 그럼 좋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영훈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구원 받은 영훈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 할수 있도록 둑어 주신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일상 가운데 도와 주시는 주님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나온 학생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양육 하는데 쓰임 받는 일꾼이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온 학생들이 무럭 무럭 자라서 이후에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 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2005학년도에 함께 수고하신 모든 교사분들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2006학년도도 더 성실하고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